

## 中·臺·美의 금문도와 대만해협에 대한 인식변화\*

— 냉전시기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대만·미국 간  
갈등과 대립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이가영\*\*

### 【목 차】

1. 서론
2. 중국 내전의 전선에서 동아시아 냉전의 전선으로 - 고령두전투
3. 진영 확장의 발판에서 진영 봉쇄의 울타리로 - 제1차 대만해협위기
4. 무력 충돌의 전선에서 이념 충돌의 전쟁터로 - 제2차 대만해협위기
5. 결론

### 【초록】

냉전시기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성격을 달리하며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과정에 핵심적인 무대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발생한 고령두전투에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 간 세력싸움의 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은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이 된다. 이후, 제1차 대만해협위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대만해협은 냉전 지형의 확대를 위한 전장으로 변모하였으나, 무력충돌의 확대로 인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위협이 되자 대만해협은 양자 간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진영봉쇄의 울타리가 된다. 이후, 중동 혁명의 지원과 대만해방이라는 가치를 내건 중국이 제2차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zgljiaying@naver.com)

만해협위기를 시작하면서 대만해협은 또 다시 열전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선전전이 진행되는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키워드】 대만해협, 금문도, 고령두전투, 제1차 대만해협위기, 제2차 대만해협위기

## 1. 서론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021년 10월 10일 중화민국 110주년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지난 72년간의 변화 속에서도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를 견지한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기실, 양안의 이 같은 상반된 의지는 국공내전부터 시작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간의 분열과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49년까지 지속된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을 수립하고 중국 대륙을 통치하게 되었다. 한편,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1949년 12월 11일 대만으로 국민당 중앙당부를 옮기고 대만 본섬과 주변 도서를 근거지로 삼는다. 이로써 냉전시기 중국과 중화민국은 대만해협을 경계선으로 삼아 각각 ‘대만해방’과 ‘대륙수복’의 기치 아래 상호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대만해협은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대만, 미국 간의 이데올로기, 정치, 외교적 갈등과 대립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대만해협은 중국 남동부 해안 지대에 있는 복건성(福建省) 하문(廈門) 지역과 천주(泉州) 지역에 위치한 폭 180km의 해역으로서, 194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군사분계선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리고 대만해협에 위치한 금문도(金門島), 팽호제도(澎湖諸島) 등 여러 작은 섬은 종종 군사 요충지 혹은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그 중,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최전선은 ‘QUEMOY(키모이)’<sup>1)</sup>라고도 불리는 금문도<sup>2)</sup>라 할 수 있다. 섬 전체의 동서 길이는 약 20km이며, 남북의 길이는 중앙

1) 키모이라는 명칭은 ‘금문’의 민남(閩南)지방 방언에서 비롯되었다. 서양 세력이 동양을 지배하기 시작한 서세동점시기, 이 섬 일대를 오고갔던 포르투갈 항해자들에게 민남지역의 장주(漳州)사람들이 예전부터 금문을 일컫던 발음(Kim-mûi)이 전해지면서 키모이란 명칭이 서구권에 알려졌다.

2) 본디 해적과 밀무역의 근거지였던 금문도는 명나라 시기에 들어서면서 정성공의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지로 사용되었으며, 1915년에 독립된 현으로 승격한다.

쪽 가장 짧은 곳이 약 3km, 동쪽 끝 가장 긴 곳이 약 15.5km로 전체 면적은 약 132km<sup>2</sup> 정도인 금문도는 현재 중국 국민당 정부가 실효지배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금문도는 중국 하문지역에서 불과 1.8km 거리에 위치하고 오히려 대만 본섬까지 21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금문도는 중국의 ‘대만해방’과 대만의 ‘대륙수복’의 첫 관문으로서 반드시 공격하고 수호해야만 하는 거점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금문도는 군사적·지정학적·외교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국가와 대비되는 자유중국의 표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냉전 시기 대만해협과 금문도에서는 여러 차례 중국과 중화민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49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벌인 고령두전투(古寧頭之役,金門戰役)와 1954년에 발생한 제1차 대만해협위기, 그리고 1958년에 발발한 제2차 대만해협위기이다. 이 전투는 모두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즉 중국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금문도 점령과 수호를 위해 벌인 전투이다. 이 세 차례의 전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군에 패배하면서, 금문도를 비롯해 마조도(馬祖島)<sup>3)</sup> 일대의 10여개의 섬들은 대만에 정착한 중국 국민당이 세운 중화민국의 영토로 남게 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금문도 점령의 실패에 따라 중국 국민당정부의 대만 지배는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냉전시기 금문도를 비롯한 대만해협은 지정학적·군사적·외교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일어난 대만해협위기는 동아시아 냉전지형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학계에서는 일찍이 대만해협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대만해협위기와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는 대부분 삼자간의 외교적 관계와 전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황규홍의 「대만해협 위기와 미국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sup>4)</sup>는 제2차 대만해협위기와 1995년도에 발생한 제3차 대만해협위기 당시 미국, 중국, 대만의 대응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두 차례의 전투 기간 동안 미국, 중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와 대응 정책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손연정의 「대만해협 위기에 관한 연구」<sup>5)</sup>는 제1차, 제2차 대만해협위기와 1995년 발생한 제3차 대만해협위기 당시 중국의 강압 외교가 전개된 상황과 그 목적을 밝힘과 동시에, 미국의 억지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3) 중국 복건성 성도인 복주시 연해에 위치한 섬으로, 1949년 이후 마조도 역시 대만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다.

4) 황규홍, 「대만해협 위기와 미국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

5) 손연정, 「대만해협위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2.

미국이 취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김창수의 「대만해협 위기 사례로 본 미국의 對중국 강압전략」<sup>6)</sup>은 195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대만해협위기와 1995년 발생한 제3차 대만해협위기 당시 미국이 운용한 강압전략을 비교분석하고, 강압의 성공요인을 비롯하여 중국에 대한 강압전략의 수행 방식과 중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김법현, 김덕기의 「중국의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이 미국 대응전략과 군사력에 미친 함의 -진먼다오(金門島)·마주다오(馬祖島) 위기를 중심으로-」는 제2차 대만해협위기 당시 중국이 실행한 군사전력을 살펴보고, 이후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술한 두 편의 연구 외에도 대만해협위기를 분석한 연구 대부분이 외교, 군사,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대만해협위기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대만해협위기가 발생한 ‘대만해협’이라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 외에도 1950년대 금문도의 가치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중섭의 「金門의 전략적 지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950년대 대만해협위기 기간 미국, 중국, 대만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sup>7)</sup>이 있다. 이 연구는 제1차 대만해협위기와 제2차 대만해협위기 동안 금문도가 반공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지정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대만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국, 중국, 대만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여 두 차례의 전쟁 속에서 금문도가 반공요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원인 찾고 있을 뿐, 이를 바탕으로 냉전시기 동아시아 냉전구도의 형성과정의 흐름에 따라 대만해협과 금문도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이가영의 「대만해협위기와 심리전 - 냉전시기 대만과 중국의 뼈라를 중심으로」<sup>8)</sup>은 그동안 무력충돌의 관점에서만 연구되어온 냉전 시기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전투를 심리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중화민국이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대만해협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양측에서 대만해협에 부여한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국내에서 냉전시기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전쟁에 관한 여러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고령두 전투, 제1차 대만해협위기 및 제2차 대만해협위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금문도를 비롯한 대만해협이 동아시아 냉전구도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 및 가치의

6) 김창수, 「대만해협 위기 사례로 본 미국의 對중국 강압전략」,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2016.

7) 김중섭, 「金門의 전략적 지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950년대 대만해협위기 기간 미국, 중국, 대만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57집, 2011.09, pp.221-238.

8) 이가영, 「대만해협위기와 심리전 - 냉전시기 대만과 중국의 뼈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집 4호, 2021.11, pp.1-35.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문도의 역사와 군사적 가치를 살펴보고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열전을 분석함으로써, 이 전투가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립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배치되던 냉전시기 미국의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 요인과 세 차례의 열전이 동아시아 냉전체제에 미친 영향을 도출함으로써, 냉전시기 대만해협이 지닌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중국 내전의 전선에서 동아시아 냉전의 전선으로 - 고령두전투

고령두전투는 중국이 최초로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시도된 무력충돌로, 중국 공산당이 대패하면서 중국의 금문도 점령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만 지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49년 3월 15일, 신화사는 「中國人民一定要解放台灣」이라는 사설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 해방’의 기치를 내걸고, 같은 해 4월 인민해방군은 도강(渡江)작전을 개시하여 당시 장강(長江) 중하류 유역의 정치·경제 중심지를 점령한다. 이들은 국민당군에 대한 대규모 전략공격을 개시하여, 난징(南京)과 상하이로 점령하여 중국공산당의 전국 정권 탈취를 가속화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9년 8월 5일, 미국 국무원은 『China White Paper(美國與中國的關係)』라는 제목의 백서를 출판한다. 이 백서의 골자는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예측함과 동시에 국민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국민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백서의 서두 부분에는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Statement On China(중국에 관한 성명)」이 실려 있는데, 이는 당시 국공내전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불행하지만 중국의 국공내전이 야기한 불길한 결과가 미합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 나라(미국)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것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었으며, 이 나라(미국)에 의해 수행되지 못한 그 무엇도 불길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나라(미국)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러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중국 내부 세력의 산물이었다.”<sup>9)</sup>

9) 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China White Paper, August 1949", stanford university p

미국 입장에서 금문도의 귀속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본디 미국은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극동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승리가 점차 확실해지면서, 미국 정부는 그 계획을 대폭 수정한다. 애치슨의 성명에서 보듯, 미국은 공산당의 승리로 예측되는 국공내전의 결과에 대해 ‘불길한 결과’라 칭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동안 중국과 소련이 이념면에서는 서로 호응하는 면이 있으나, 영토문제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머지않아 끝나라라 판단하였고,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1949년 12월 8일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퇴각할 당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원인을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독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장개석이 대만을 보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흡수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뒤인 1949년 11월, 장개석에게 대만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국민정부의 시정(施政)에 따라 달라질 것’<sup>10)</sup>임을 밝힌다. 이러한 정세적 상황에 따라, 미국은 자연스레 대만해협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 하향 평가하였으며, 금문도를 그저 대만해협에 존재하는 작은 섬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의 수세에 밀린 장개석은 1949년 중반 이후부터 국민당군을 순차적으로 대만 본섬에 주둔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결국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선포와 함께 전쟁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때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만 본섬으로 이동하였는데, 장개석은 대만 본섬의 방어와 중국대륙의 수복을 위해 대만 본섬에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서 금문도에 군력을 주둔시킨다.

국민당 정부는 금문도에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을 건설함과 동시에 금문도를 최후의 보루로써 본격적으로 요새화 한다. 따라서 이 시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금문도와 하문<sup>11)</sup>은 상호 공격과 방어를 위한 불가분의 관계

---

ress, p.xvi. “The unfortunate but inescapable fact is that the ominous result of the civil war in China was beyond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Nothing that this country did or could have done, within the reasonable limits of its capabilities, could have changed that result; nothing that was left undone by this country has contributed to it. It was the product of internal Chinese forces, forces which this country tried to influence but could not...”

10) 박정현, 「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아세아연구』, 제56집 3호, 2013.09, pp.129-157.

11) 하문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본섬과 팽호군도를 공격하기 위한 최단거리의 항구도시였다.

에 놓이게 된다.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지던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간의 전쟁이 대만해협으로 무대를 옮긴 것이다. 이로써 대만해협은 중국대륙 전체를 장악한 중국 공산당과 금문도를 비롯해 중국 남부 해안지대를 점령한 중국 국민당 간의 갈등과 마찰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격전지가 되었다.

특히, 금문도는 하문 간 거리의 근접성으로 인해 쌍방 간의 물리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전략도서’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즉, 금문도는 중국정부와 국민정부 모두에게 ‘국가이익과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안보적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직접적 및 잠재적 위협대비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군사적 핵심도서’<sup>12)</sup>로서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 본섬을 방어하기 위해 금문도를 사수해야만 했던 국민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금문도는 군사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9년 장개석이 탕은백(湯恩伯)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금문 지역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장개석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정세의 어려움과 위태로움은 이미 극에 달했으며, 금문 지역과 하문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동남 지역의 군사적 성패는 이 지역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비적(공비)을 토벌하는 전체 국면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3)</sup>

당시 국민당군은 대만 본섬의 방어준비를 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국 대륙과 가장 가까운 섬이자 최전선인 금문도에서 중국 해방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당군의 제해·제공권이 아무리 우세하다 하더라도 대만 본섬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때문에 금문도는 중국 국민당에게 있어 대만 본섬 수호를 위한 중심축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군사거점이었다. 이 시기 중국 국민당의 금문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역시 금문도의 군사적·안보적 가치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금문도는 대만해방의 과업을 가로막는 1차 장애물이자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었다. 대만 점령의 최종 목적지는 대만 본섬이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길목에 있는 금문도를 평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문 지역은 각각의 대만 ‘해방’과 대만 ‘수호’

이외에도 상해, 광주, 온주, 선두 등의 지역에서도 출발할 수 있었으나, 거리상의 문제 혹은 시설상의 문제로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었다. 徐相文, 「중국 國·共내전시기 金門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2집, 2004.06, p.64. 참조

12) 정창윤·최호재, 「한반도 전략도서 개념, 판단과 운용방안」, 『군사연구』, 제147집, 2019.06, pp.65-92.

13) 總統府編, 『蔣總統引退與後方佈置(2), 蔣中正總統檔案, 革命文獻拓影, 戡亂時期, 第29冊』, 時英出版社, 2009, p.634. “今日局勢艱危已極, 金廈地區, 萬分重要, 不僅關係東南軍事之成敗, 且影響剿匪全局之安危.”

라는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었다. 환언하자면,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있어서 금문도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통해 남하하여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는 1차 방어선이자 350만명 규모의 항구도시 하문을 직접적으로 타격 가능한 위협적인 공격선이었으며, 중국공산당 정부에게 있어서 금문도는 대만해방을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금문도의 귀속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국민당은 대만으로의 철수와 동시에 금문도를 비롯한 마조 열도에 병력을 배치한다. 중화민국군은 제80군 제201사단과 전차 제3연대 제1대대를 금문지역에 배치하여 방위를 담당토록 하였고, 이량영(李良榮)을 병단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949년 9월 중순부터 제5군을 배치하여 소금문도를 방위토록 하였다. 10월 초부터는 제18군을 추가 배치하여 금문지역의 방위를 보강하였으며, 10월 19일 제19군을 선두(汕頭)지역에서 금문으로 이동시켜 방위 병력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10월 24일 호련(瑚璉)장군이 지휘하는 제12병단이 조산(潮汕)에서 금문으로 이동하였다. 이외에도 국민당군은 공군의 폭격 정찰, 해군의 초계 협방을 준비하는 등 대만 본섬의 방어와 수호를 위해 금문지역을 군사적 요새로 만들었다.

이 시기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배 아래에 있는 대만 본섬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1949년 10월 15일 하문 지역을 해방시킨 인민해방군은 제31군을 하문지역에, 제29군을 금문도 북서쪽 맞은편 해안지대에, 제87사단을 오통(五通) 서남서쪽 일대에, 제85사단을 후두(後頭) 부근에 주둔시켰다. 또한 제28군은 도강(濤江)에, 제82사단은 연하(蓮河)·석정(石井) 부근에, 제83사단의 주력부대를 백사(白沙)·금정(金井)·탑두(塔頭)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제84사단의 경우에는 대등(大等)지역에 주력부대인 제1포병군을 집결하여 배치하였고, 일부 주력부대를 소등(小燈)과 각서(角署) 일대에 집결시키고 제 2포병군을 배치함으로써, 금문의 남쪽을 제외한 북쪽, 서쪽, 동쪽을 3면으로 포위하였다.

1949년 10월 20일부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국군 양측 모두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중화민국국군의 기록에 따르면, “23일에 금문 맞은편 연안에 있는 적군의 크고 작은 목선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만 해도 162척(기선 3척 포함)이며, 안해만에 있는 것까지 합쳐 약 200여척에 달했다. 24일 적군은 산포와 곡산포<sup>14)</sup>를 각각 20여문을 싣고 대백, 소백, 대등, 소등 등 각 섬을 공격하였다.”<sup>15)</sup>고 한다. 10월

14) 당시 인민해방군은 중국 본토에서 후방부대가 포탄 발사등을 통해 지원 사격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일본제 야포, 미국의 곡사포는 화력이 낮고 사거리가 짧은 구식 무기였다. 따라서 금문도에서 이루어진 전투를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였다.

15) 國防部史政處, 『金門戰役』, 國防部印刷廠, 1957, p.8. “迄廿三日, 金門對岸匪軍大小木船, 其曆曆可數者, 計有一六二只(內有汽船三只), 連其在安海灣者, 共計約有二百餘只. 廿四日, 匪軍將山炮、



24일 밤 해방군 제28군 주력부대 제 1제대의 보병 3개 연대(제244연대, 제251연대, 제253연대)와 제246연대의 제33대는 200여 척의 목선에 나뉘타고 연하(蓮河)와 오두(澳頭), 대등(大嶝) 지역에서 출발하였고, 25일 오후 2시 10분경 금문도의 후사(後沙)、룽구(壟口)、고령두(古寧頭) 등 해변에 도착한다.

사실, 인민해방군은 금문도에서 가장 폭이 좁은 섬의 중앙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즉, 금문도 중앙을 먼저 점령한 뒤, 동서로 갈라져서 금문도를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이는 당시 중화민국군이 금문도의 방어를 위해 금문도의 해안선을 따라 지뢰를 매설했는데, 안전한 이동을 위해 중앙부분은 지뢰 매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월 24일 밤, 금문도 중앙을 향한 인민해방군은 심한 풍랑과 빠른 조류로 인해 금문도 서쪽에 위치한 고령두에 도착하게 된다. 비록 예상과 빗나간 지역에서 상륙하였으나, 당시 인민해방군은 국공내전과 중일전쟁 등 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으며, 국공내전의 승리로 사기가 진작된 상태였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금문도는 ‘쥐가 우글거리는 패잔병만 남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금문도에서의 전투를 과소평가하며 금문도 탈환을 쉽게 여겼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이 고령두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중화민국군 소속 소대장이 해안선을 순찰하던 중 지뢰를 건드려 터진 것이다. 지뢰의 폭발로 인해 해안가에 위치한 초소에서 바다를 향해 불을 비추었고, 이로 인해 금문도로 향하던 인민해방군의 목선이 발각된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전날인 24일 진행된 중화민국군 기갑부대 기동훈련이 끝나고 복귀하던 중 M5A1 전차 3대가 고장이 나서 고령두 해안가에서 정비를 위해 서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인민해방군이 상륙을 위해 발사한 신호탄 2발이 발각된 것이다. 비록 고령두 해안가에 있던 세 대의 전차는 고장이 나서 기동이 되지 않았으나, 포탄 발사는 가능하였다. 따라서 신호탄이 발사된 방향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였고, 마침 이 포탄이 탄약을 실은 수송함에 떨어져 큰 폭발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인민해방군이 금문도 부근에 도착하자마자, 금문도의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한다. 특히, 금문도의 서쪽에 위치한 고령두 지역에서는 56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사실, 고령두전투 초반에는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우세하였다. 갑작스러운 인민해방군의 공격에 당황한 중화민국군은 대만 본섬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25일 새벽 대만 본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가 출발하여 인민해방군의 교두보와 목선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화민국의 해군 역시 가

---

榴彈炮各二十餘門，推進至大伯、小伯、大嶝、小嶝各島上。”

세하면서, 전투의 양상은 점차 인민해방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중화민국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여 급파하면서, 잠시 중화민국이 수세에 몰리는 듯 보였으나, 곧 대대적인 반격을 하게 된다. 당시 인민해방군의 최정예군은 무기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반면, 중화민국군은 해군과 공군으로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중화민국군은 인민해방군 최정예부대가 금문도에 상륙하기도 전에 전력의 절반을 전사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금문도 내에 이미 주둔한 포격부대 역시 전차 등의 무기를 이용하여 인민해방군에 맞서면서, 3일간의 치열한 전투는 중국의 완패로 끝이 난다.

당시 고령두전투에 참전한 병사의 수는 중국측 9000여명, 중화민국측 4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수적 차이는 국민당에게 있어 대만 본섬 수호를 위한 금문도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격렬한 전투로 인해 양측은 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전투로 파병된 9000여명의 해방군 중에서 6100명이 전사하고 제251연대 참모장 학월삼(郝越三), 정치처 주임 왕학원(王學元), 제245연대 부단장 유한빈(劉漢彬) 등 약 3000여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sup>16)</sup> 단 한 명도 중국으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국민당은 금문도와 함께 대만 본섬을 수호하게 된다. 1949년 10월 27일 고령두전투의 승리 소식이 대만의 수도 대북(臺北)까지 전해지자, 장개석은 ‘이번 전투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했다…대만은 안전하다.’<sup>17)</sup>라고 말하며 ‘고령두전투로 인해 금문도는 물론 대만 본섬도 지켜냈다’<sup>18)</sup>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고령두전투의 승리가 중화민국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11월, 미국은 장개석에게 중화민국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국민정부의 시정(施政)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중화민국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은 1950년 트루먼 대통령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절취 했던 중국 영토 대만을 중국에 귀환한다고 공표하였다.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 선언에 서명한 국가이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대만은 이미 중국에 귀속되었다. 미국은 대만이나 중국의 기타 영토에 대해 어떠한 야심도 없다. 현재 미국은 대만에서 특별한 권리나 특권을 획득하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할 의사가 없다. 미국은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무력을 통한 간섭을 하지 않을

16) 「60年前我爸是共匪 被俘黨証肚裡吞」, 『聯合報』, 2009.03.19. 참조

17) 「金門戰役檢討」, 『聯合報』, 2009.06.04. 참조

18) 汪朝光·王奇生·金以林, 『天下得失: 蔣介石的人生』, 中和出版, 2012, p.59. “古寧頭大捷, 不僅保住了金門, 更保住了台灣.”

것이다.”<sup>19)</sup>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Acheson)은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연설에서 이익의 경계선은 알류산 열도로부터 남쪽으로 일본과 류큐 섬을 지나 필리핀에 이른다고 선언한다. 이는 국민당이 점유하고 있는 대만은 미국의 안보이익 경계 밖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자 국민당 스스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만 함을 의미하였다. 즉, ‘미 국무부는 대만이 필연적으로 공산화될 것이며,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희생하며 대만을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sup>20)</sup>한 것이다. 이로써 대만해협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나누는 경계선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세력 다툼의 격전지 정도로 저평가되면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이 같은 대만 정책 변화를 대만을 해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였다. 게다가 1950년 2월 중국과 소련이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만해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의지는 점차 커져갔다. 1950년 5월 1일 해남도 점령을 마지막으로 대륙을 모두 점령한 중국은 조국 해방의 마지막 단계로 국민당의 근거지인 대만 본섬을 공격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한다.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은 ‘항미원조’의 기치 아래 총 군력을 중국 동북지역으로 집중한다. 이 시기 중국은 대부분의 군력을 한반도로 이동시켰으나, 미얀마를 마주보는 운남성 지역의 국경<sup>21)</sup>과 금문도를 맞대고 있는 하문지역의 군력은 일부 남겨놓았다. 특히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군은 하문과 금문 지역에 주둔군을 늘리고 군비를 확충하는 등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냉전적 분위기 속에서 열전의 준비를 지속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본토 수복에 대한 노력과 중국 공

1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41.

20) 이규원,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 외교정책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21)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개석이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긴 이후, 리미 장군이 이끈 국민당 제 8군, 제26군, 93사단은 인민해방군에 밀려 12월 말부터 운남성 국경을 넘어 버마로 탈출한다. 그리고 1951년 초 리원환이 무장한 500여 명을 데리고 버마 국경을 넘어 합류하며 세력을 키운다. 한편, 1950년 초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우려하던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합동참모본부(JSC)가 건의한 ‘국민당 잔류세력 지원안’을 승인하면서 극비리에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잔류세력의 재조직과 지원 작전에 투입했다. 버마의 산주 몽양에 본부를 차리고 ‘운남반공구국군’을 결성한 리미 장군은 지역 소수민족을 끌어들이 1만 가까이 병력을 불렀고, 1951년 4월 무렵엔 버마의 살원강에서 운남 국경까지 세력을 넓혔다. 세력이 커지면서, 이들은 국경지대에서 중국 공산당과 격돌하였으며, 일부는 1954년에 중국으로 송환된다. 트루먼의 후임인 아이젠하워는 국민당 잔류세력이 남아있는 버마와 중국 간의 밀월관계를 막고자 국민당 잔류세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버마·대만·미국·태국 등 4개국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당 잔류세력 송환 임무를 실시한다. 이로써 1953부터 1954년까지 국민당 잔류세력 5770명과 관련자 880명이 대만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1954년 5월 30일, 리미 장군이 대만으로 떠나면서, 운남반공구국군은 해체를 선언했다.

산당의 대만 해방의 꿈은 여전히 물밑에서 계속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1951년 9월 8일 맺어지고 이듬해 4월 28일 발효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세계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양분되었으며, 동아시아 역시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 진영과 일본, 대만, 한국의 자유 진영으로 분할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대만은 여전히 중국으로의 귀속이라는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였다. 국제법상 대만의 지위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국과 중화민국의 갈등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은 대만해협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미국은 한국 전쟁 발발 이후 대만해협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장개석에게 대륙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중지하고, 미 해군에 의해 유지되는 방어태세를 견지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점령이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배치하고, 기류항에 미국의 구축함 브라시함(USS Brush, DD-745)을 입항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지역은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열전의 불씨를 지닌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었다.

### 3. 진영 확장의 발판에서 진영 봉쇄의 울타리로 - 제1차 대만해협위기

1953년 1월 20일 미국 제34대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큰 변화를 겪는다. 제2차 세계대전에 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던 아이젠하워가 공산국가의 해방을 위한 반격(Rollback)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의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는 트루먼 시기의 봉쇄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계승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전술적으로는 핵무기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소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sup>22)</sup> 즉, 아이젠하워는 공산주의 국가의

22) 권오신,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초 - ‘뉴룩(New Look)’ 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 『미국

주변에 위치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트루먼 정부의 봉쇄정책을 수정하여, 항공력과 핵무기의 증강을 통해 대량 보복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뉴룩(New Look)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은 그동안 대만해협의 충돌을 막기 위해 배치한 미7함대를 철수시켰고, 아이젠하워는 1953년 2월 2일 국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통해 미 해군의 대만 봉쇄를 철회하면서 대만해협의 중립화를 선언한다. 이 같은 아이젠하워의 결정은 당시 한국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했던 중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와 대만해협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한동안 군사적 충돌이 멈추었던 대만해협은 군사적 긴장감이 맴돌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갈등은 또다시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본격적으로 중화민국의 통제 하에 있는 대만해협 내 외도(外島)를 점수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과 팽호제도가 동시에 공격당하지 않는 한, 미국은 연해 도서 방위를 위한 무력충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내세운다. 그러나 1954년 4월 디엔비엔푸에서의 전투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포위된 프랑스군을 구출하지 않으면서, 아이젠하워의 뉴룩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국가안보 doktrin의 효율성을 입증할 기회를 대만해협에서 찾게 된다. 즉, 대만해협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미국의 공약을 행동으로 입증할 공간이 된 셈이었다.

1954년 5월 27일 아이젠하워는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에 대해 허가 의사를 밝혔고, 5월 28일 제199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제7함대의 일부 함선을 대진도와 기타 연안 도서에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미국의 제7함대의 배치는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측의 도발을 막기 위함이었다.<sup>23)</sup> 이로써, 미국은 국가안보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정치적 목적 하에, 또다시 대만해협에서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1954년 7월 21일 제네바협정<sup>24)</sup>이 체결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은 소강상태가 되는 듯 보였으나, 다음 날인 1954년 7월 22일 중국 공군 29사단 소속 LA-11전투기 두 대가 캐세이패시픽 항공의 민항기 더글라스 DC-4를 중화민국 공군기로 오인해 격추하는 사건<sup>25)</sup>이 발생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평화 공존 약속은 지켜

사연구』, 제21집, 2005.05, pp.154-65. 참고

23)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 - 1957, China, Vol.2",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pp.433-434.

24)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민주공화국, 미국, 영국, 프랑스 제4공화국, 남한, 베트남국 등 9개국이 참가하여, 북위 17도를 경계로 하여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는 것에 합의한 협정.

지지 않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1954년 7월부터 대대적인 대만해방 선전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7월 23일 인민일보는 사실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켜야 한다(一定要解放台灣)」를 발표하였고, 8월 22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에서 「각 민주당과 각 인민단체 대만해방 관련 연합선언문」을 통과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주당과와 인민단체는 대만 해방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 인민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세계에 엄숙히 선포’<sup>26)</sup>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결정은 ‘조국해방’이라는 미시적 목적과 함께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공산진영의 확대’라는 거시적 목적이 함께 결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정치적 목적 하에 대만해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복건성 인근의 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1954년 8월 25일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시 복건성 사령관이었던 엽비(葉飛)에게 금문도 포격을 지시한다. 그 명분은 ‘미국 제국주의 정부의 침략정책을 타격하고 국민당군의 동남해안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장개석이 공동방위조약 체결을 타진하는 동안 금문도에 주둔하는 국민당군에게 징벌적 타격을 가한다’<sup>27)</sup>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하문지역에 공군, 해군 및 포병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대만해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8월에 들어서면서, 중화민국 역시 대만수호와 본토 수복을 위해 대륙에 인접한 작은 도서를 군사기지로 삼고, 금문도로 국민군 5만 8천 명을 이동시켰으며, 마조지역에도 1만 5천명의 군인을 집결시킨다. 이로써 가로 최대 길이가 약 20km이고 세로 최대 길이 약 10km로, 총면적 약 150km<sup>2</sup>에 불과한 금문도에는 약 4만 8천여 명의 군인이 주둔<sup>28)</sup>하게 되었고, 7천 5백여 개의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200여 개의 지하병커 및 장애물이 건설되었다. 금문도 섬 전체가 본격적으로 요새화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중화민국-미국 간의 상이한 정치적 목적 속에서 1954년 9월 3일부터 1955년 5월 1일까지 제1차 대만해협위기가 발생한다.

25) 당시 격추된 민항기의 기장 필립 브라운(Phillip Brown)은 본 사건이 캐세이퍼시픽항공의 민항기를 대만 민항공운공사(CAT) 항공기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방군의 CAT기 공격은 윌리엄 도너번(Donovan, William J.) 전 전략정보국 국장(당시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목표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너번은 당시 CAT 항공기 탑승 계획이었다.

26) 廈門軍事志編纂委員會, 『廈門軍事志』, 2000, p.101. “中華人民共和國各民主黨派和人民團體發表解放台灣的聯合宣言, 向世界莊嚴宣告: 台灣是中國的領土, 中國人民一定要解放台灣.”

27) 葉飛, 『葉飛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8, p.644. “爲了打擊美國帝國主義政府的侵略政策和制止國民黨軍對東南沿海的侵襲, 在美蔣欲謀簽訂「共同安全雙邊條約」期間, 對金門國民黨軍實施懲罰性打擊.”

28) 1954년 중앙정보국(CIA)에서 생성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금문도에 주둔한 중화민국군의 수는 42,100명이었으며, 이 외에 유격대 6천명 역시 금문도에 주둔하였다. 참조) US NARA CIA, “The Chinese Offshore Islands”, 8 Sept. 1954, p.3. 문서번호 CIA-RDP80R0144R000300050008-7.

1954년 9월 3일 중국은 20개 포병대대 150문을 배치하여 대금문도, 소금문도, 대담도, 이담도 등 금문도 전체와 마조열도까지 공격하였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약 70회의 포격을 가해 800여명의 중화민국군 사상자와 2명의 미군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미국의 앤더스 장관은 즉각 아이젠하워에게 중국 측의 공격을 보고하였고, 미군 MA AG요원 2명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sup>29)</sup> 이에 미국은 중화민국과의 안보조약을 강화하는 조치로써 9월 5일 미7함대 항공모함 3대와 순양함대 3대를 급파<sup>30)</sup>하는 등 미해군력을 대만해협에 파견·배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54년 9월 12일, 덜레스는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유화한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유엔에 제출한다. 그 내용은 대만해협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현재의 국면을 악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이 대만해협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방법은 중화민국의 독립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1)</sup>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무력충돌이 심화되면서, 1954년 11월 중국은 대진군도(大陳諸島)를 비롯하여 복건성 인근의 외도에 대해 공격을 시작한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공격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대만과 팽호제도를 제외한 중국 대륙 연안의 30여 개 도서의 방어 여부에 대한 논의<sup>32)</sup>가 이루어지면서, 공동방어 범위에 연안 도서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화민국은 미국에게 연안도서를 공동방위의 범위 내에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금문도를 비롯한 마조도, 일강산도 등의 외도가 중국 본토에 매우 인접하여 위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결국, 미국과 중화민국은 1954년 12월 2일 대만 본섬과 팽호제도의 방위에 대한 ‘미국과 중화민국간의 공동방위조약(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고, ‘각 체결국(미국과 중화민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양 당사자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이 양측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것’<sup>33)</sup>을 선포한다. 그리고 미국은 금문과 마조 등 외도(外島)의 귀속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중화

29)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 - 1954, China and Japan, Vol.14, Part 1*”,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p.556-557.

30) Li, Xiaobing, ‘PLA Attack and Amphibious operations During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54-55 and 1958’, Mark A. Ryan, David M. Finkelstein, and Michael A. McDevitt, “*Chinese War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M. E. Sharpe, 2003, p.151.

31) [美]杜勒斯, 「杜勒斯備忘錄」(1954.09.12.), 陶文釗, 『美國對華政策文件集 第2卷(上)』, 世界知識出版社, 2004, pp.254-256.

32) [美]卡爾 洛特 蘭金, 「出使中國」, 『蘭金回憶錄』, 上海人民出版社, 1975, p.195.

33)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China: December 2, 1954. 참조)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chin001.asp](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chin001.asp)

민국 정부의 철수 및 대륙과의 중립지대 조성(공동통치)을 제안한다. 중국은 미국과 중화민국 간의 공동방위조약에 대해 즉각 반발하였으며, 12월 9일 주은래는 「미국과 대만의 「공동방위조약」에 대한 성명」을 낸다. 그 주요 골자는 ‘미국 정부가 이 조약을 통해 중국 영토인 대만에 무장 점거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대만을 근거지로 하여 중국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인민에 대한 엄중한 전쟁 도발’<sup>34)</sup>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대륙 연안의 도서에 대한 중화민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이듬해인 1955년 1월 10일부터 대진도(大陣島)와 일강산도(一江山島)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취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월 18일 선박 188척과 전투기 184대, 군인 총 1만여 명을 이끌고 인민해방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육·해·공 합동 공습인 ‘일강산도 상륙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중국은 대진제도에서 13km 떨어진 일강산도에 상륙하여 섬 전체를 함락시키고 연안 도서에 중화민국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이에 1955년 1월 29일 미국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은 ‘대만결의안’을 의결하고, 아이젠하워는 중국의 공격에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대통령이 갖게된 권한 속에는 중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실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수세에 몰린 중화민국은 1955년 2월 5일 금문도와 마조열도에 대한 미국의 비공식적 방어 약속만을 받은 채로 군대의 철수를 결정하고, 2월 7일부터 미7함대의 호위아래 대진도 주둔군 1만 8천여 명을 금문도, 마조열도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민간인 1만 4천여 명은 대만 본섬으로 후송하였다. 2월 11일 철수 작전이 종료되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진도를 비롯하여 어산열도(魚山列島), 피산도(披山島)등 연안 도서를 차례로 점령한다. 이에 미국은 금문, 마조지역에서 또다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중화민국에 금문, 마조에서 철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국을 향해 계속된 군사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sup>35)</sup> 덜레스 미 국방장관은 1955년 3월 28일 국무부에서 열린 회의석상에서 중국의 대만 점수를 막기 위해 핵공격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sup>36)</sup> 당시, 중국은 55년 1월부터 핵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만을 세웠을 뿐, 미국의

34)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長周恩來關於美蔣「共同防禦條約」的聲明」(1954.12.09.), 梅孜主, 『美台關係重要資料選編(1948.11-1996.4)』, 時事出版社, 1996. pp.8-12. “美國政府企圖利用這個條約來使他武裝侵占中國領土台灣的行爲合法化, 並以台灣爲基地擴大對中國的侵略和準備新的戰爭, 這是對中華人民共和國和中國人民的一個嚴重的戰爭挑戰.”

35) 이규원, 「중국의 대만 도서지역 포격사건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27권 2호(통권92호), 2011, pp.199-225.



핵공격을 상쇄할만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핵공격을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중국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1955년 4월 23일 주은래는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석상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유화적 성명을 발표<sup>37)</sup>하고, 5월 1일 중국이 금문도와 마조도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면서, 제1차 대만해협위기는 종식된다.

제1차 대만해협위기가 끝난 이후, 대만해협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중화민국, 그리고 미국은 각기 또다시 불거질지 모를 갈등을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고 있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미중 관계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위협에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즉각 핵무기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제1차 대만해협위기가 종료된 직후인 1955년 7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국의 핵무기개발사업을 지휘할 정책담당자 3인을 지명하였으며, 소련과 동독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기초과학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56년 광둥성, 강서성, 호남성에서 핵원료인 우라늄 광산을 발견<sup>38)</sup>함으로써,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문제 역시 해결하면서, 본격적인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중화민국 역시 제1차 대만해협위기 이후 해군과 공군력을 보강하고, 금문도를 비롯한 대만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차 대만해협이 종식된 1955년부터 1958년 제2차 대만해협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화민국 공군은 15,546회 대륙 항공을 비행했으며, 110회 정찰하였다. 1957년 12월에는 천주만(泉州灣) 지역에서 중국 선박 3척을 격침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양측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중화민국을 공산주의 확장에 대항할 수 있는 장벽이라 판단하고, 1957년 중화민국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해 11월 대만 남쪽 해상에서 제6함대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58년 3월 14일, 대만주재미국군 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 결과, 제1차 대만해협위기가 발생한 1954년 4,174명에 불과하던 주대만미군의

36)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 - 1957, China, Vol.2",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p.410.

37) 周恩來, 「在亞非會議全體會議上的發言」(補充發言),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6冊』, 中央文獻出版社, 1994, pp.170-182. "本來, 對於美國一手造成的台灣地區的緊張局勢, 我們很可以在這裏提出如同蘇聯所提出的召開國際會議謀求解決的議案, 請求會議加以討論. ……而且, 中國在聯合國所受的不公正待遇, 也可以在這裏提出批評. 但是, 我們並沒有這樣做. 因為這樣一來, 就很容易使我們的會議陷入對這些問題的爭論而得不到解決."

38) 중국은 우라늄 광산을 발견함으로써 핵 개발에 필수적 세 가지 요소인 자원, 기술, 예산 중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수는 1958년 19,044명까지 크게 늘었다. 대만해협은 중국, 중화민국,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1958년까지 한시적 평화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1차 대만해협위기는 중국의 대만해방에 대한 꿈과 대만의 본토 수복의 희망이 재차 대만해협 수면 위로 올라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 자유 세계를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대만과 연안 도서의 귀속 문제는 더 이상 중화민국과 중국의 내전 문제가 아닌 국제적 쟁점이 되었으며,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물리적 충돌은 정치적·이념적 충돌로서 확대되었다.

#### 4. 무력 충돌의 전선에서 이념 충돌의 전쟁터로 - 제2차 대만해협위기

제1차 대만해협위기 이후, 중국과 중화민국 그리고 미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중국과 중화민국이 여전히 ‘대만해방’과 ‘본토수복’이라는 각기 상반된 목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을 내정문제로 규정하고 중화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중국에게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중화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늘렸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국을 방문한 딜레스는 중국에서 내전이 재발하는 것을 저지하고 대만해협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민국 측에 금문도와 마조도에서 중화민국군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장개석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장개석은 미국 측에 공동방위협정을 근거로 더욱 강화된 안보지원을 요청했고, 1958년경에는 중화민국군 총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의 병력을 금문도와 마조열도에 집중 배치한다. 이 같은 삼자간의 엇갈린 요구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힘겨루기라는 내부적 상황에 더해, 한국전쟁 이후 굳어진 세계적 냉전 대결 구도와 오버랩되면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킨다.

1957년 12월 18일, 모택동은 대만을 해방시키고 미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금문도를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58년 공군을 복건성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58년 4월 27일 엽비는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금문에 대규모의 포격과 봉쇄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한다.<sup>39)</sup>

39) 韓懷智·譚旌樵,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p.386.

대만해협에서의 한시적 평화가 깨지고 군사적 긴장감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58년 6월부터이다. 6월 1일 중화민국 해군이 마조열도 부근에서 발생한 교전에서 중국 측 함정 2척을 격침하고, 7월 29일 대만해협 남부 상공에서 발생한 공중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 군공기 2대를 격추하는 등 쌍방 간 군사적 마찰이 계속 되던 중, 1958년 7월 14일 이라크에서 무장혁명이 발발한다. 이라크 혁명군이 왕실을 무너뜨리고 이라크 공화국을 수립하며 바그다드 조약을 탈퇴하자, 미국은 7월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레바논에 미군을 출병시킨다. 이에 중국은 중동의 혁명세력을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중동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1958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대하(北戴河)에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에 참석한 모택동은 금문을 포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시선을 대만해협으로 돌려 중동지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7월 27일 황극성과 국방장관인 팡덕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잠이 오지 않아 생각해보니, 금문 공격을 며칠 멈추는 것이 좀 더 적절할 듯 하다. 지금 공격하지 말고, 정세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 상대가 방어태세로 전환하더라도 공격하지 말고, 방어태세로 바꾸지 아니하더라도 공격하지 말라. 상대가 무리하게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반격하라. 중동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시간이 있는데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잠시 공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공격할 날이 올 것이다……만일 상대가 공격해오면, 며칠간 잘 생각해보고 그때 다시 공격하도록 하라.<sup>40)</sup>

이 같은 모택동의 지시 아래, 중국은 1958년 7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공권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포격 준비를 한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중화민국 역시 7월 17일부터 모든 군인의 휴가를 중지시키고 특별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중화민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대륙수복’을 외치며 1958년 8월 6일 대만해협의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제2차 대만해협위기를 조성한다. 이 같은 미국의 전력 이동으로 인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감이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자, 소련과 영국, 프랑스는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낸다.

8월 20일 모택동은 ‘즉각 군사력을 모아, (마조지역을 제외한) 금문 국민당군에 대해 급작스럽고 맹렬한 타격을 하고, 이를 봉쇄토록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모택동은 타격과 봉쇄가 일정 기간 진행되면 중화민국이 금마지구에서 철수하거나 어려움에

40)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毛澤東軍事文選』, 中國人民解放軍戰士出版社, 1981, p.364. “睡不着覺, 想了一下. 打金門停止若干天似較適宜. 目前不打, 看一看形勢. 彼方換防不打, 不換防也不打. 等彼方無理進攻, 再行反攻. 中東解決, 要有時間, 我們是有時間的, 何必急呢? 暫時不打, 總有打之一日……如彼來攻, 等幾天, 考慮明白, 再作攻擊.”

발버둥 칠 것이며, 상륙작전 시행 여부는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sup>41)</sup>

1958년 8월 23일 오후 6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금문을 향해 포격을 개시하였다. 포격 개시 2시간 만에 중국은 4만발에 달하는 포탄을 금문도를 향해 발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화민국군의 중앙지휘소를 비롯해 포병진지, 관측소, 도로 등이 파괴되었으며, 4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24일, 중국은 미국과 중화민국간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일환으로, 중화민국에 편입된 연안 도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진행하며, 금문도의 보급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작전의 중점을 대만에서 금문도에 이르는 수송로 및 보급로 봉쇄에 두고 금문도 지휘본부, 포병진지, 레이더, 항구, 선박 등을 작전목표물로 삼았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대만 전역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개입하게 된다. 8월 24일부터 미국은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지의 병력을 이동시켜 대만해협으로 집결한다. 제2차 대만해협위기 기간 동안 미군은 총 6척의 항공모함, 130척의 전함, 500대의 전투기, 3,800명의 해병대와 5,000명의 육군을 대만해협으로 집결시켰다.<sup>42)</sup>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 같은 강경한 군사적 조치에 더해, ‘금마지역을 탈취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중국의 봉쇄 작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금문도 포격을 비롯해 대만해협에서의 공중전과 해상작전, 보급로 차단 등 일련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금문과 마조를 모두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sup>43)</sup>하고,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배치하고 F-104A 전투기 등을 중화민국에 급파하는 등 본격적인 전쟁태세에 돌입한다. 그리고 대공미사일 1개 대대의 배치를 비롯해, 203mm 곡사포와 155mm 곡사포 등을 중화민국군 포병부대에 제공하는 등 ‘미군과 미국 정부의 단합된 지지’<sup>44)</sup>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금문 지역을 향해 포문을 연 지 4일째 되는 8월 26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이미 약속한 무력으로 대만해방을 저지하는 책임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미국이 또다시 전쟁에 개입하지 않

41) 韓懷智·譚旌樵,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p.394.

42) 이규원,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 외교정책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43) The united bac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and US Government 참조)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 - 1960, China, Vol.1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81-82.

44) The united bac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and US Government 참조)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 - 1960, China, Vol.1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39-40.

우리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전쟁에서 중국이 타깃으로 삼은 적은 미국’이라 판단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만해협 상황에 대한 회의에서 ‘미국이 개입할 시 미국에 대한 이념적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장개석과 중화민국군을 전면에 내세울 것에 합의<sup>45)</sup>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의 전략은 방어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 ‘해상 섬 근처의 적 포대와 지역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해양 섬 방어를 직접 지원할 것’을 동시에 승인<sup>46)</sup>하면서,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국은 적극적 방어와 소극적 지원을 포함한 절충적 개입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9월 2일 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대규모 해전으로 인해 또 다시 바뀌게 된다. 9월 2일, 물자보급을 위해 평후 지역에서 금문으로 향하던 타강(沱江)호가 요라만(料羅灣)에서 중국 측의 함정과 충돌하면서, 양측 합산 총 30여 척의 함정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중화민국은 이 전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 10여 척이 격침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중국은 양측 선박의 충돌로 인해 2척이 침몰했다고 발표한다. 이처럼 해상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격해지면서, 당시 미국의 합참의장인 네이선 트위닝은 ‘미국의 군사개입이 필요할 경우, 소형 핵무기를 통해 중국 측의 비행장과 해안 포대를 공격할 것’<sup>47)</sup>임을 결정한다. 그리고 9월 3일 미 해군 제7함대는 본격적으로 중화민국의 물자보급을 지원하고 중화민국 해군의 함정을 엄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9월 4일 『영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중국 영해를 12해리로 공표한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를 중국과 중국 공해를 마주하는 대만과 그 주변의 도서 및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및 기타 중국의 도서로 규정하고 ‘모든 외국의 항공기와 함선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허락 없이 중국의 영해와 영공에 진입할 수 없다’<sup>48)</sup>고 밝혔다. 또한, 9월 6일 주은래는 「대만해협 지역의 정세에 관한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연안의 도서에 숨어있는 장개석 부대에 대해 단호한 타격과 필요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며, 모든 외부의 간섭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적 행위’<sup>49)</sup>라 규정한다. 이는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

45) The united bac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and US Government 참조)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 - 1960, China, Vol.1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96-99.

46)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의 승인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47) The united bac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and US Government 참조)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 - 1960, China, Vol.1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115-122.

48) “一切外國飛機和軍用艦船，未經中華人民共和國政府的許可，不得進入中國的領海和領海上空。”

49) “中國政府完全有權對盤踞在沿海島嶼的蔣介石不對給予堅決的打擊和採取必要的軍事行動，任何外

돌이 중국의 내정문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였으며, 동시에 미국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중국의 이 같은 경고에 미국 백악관은 9월 4일 ‘대만과 금문, 마조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중국, 즉 중화민국의 통치하에 계속 있었다.’<sup>50)</sup>라는 점을 보도 자료를 통해 명시하고, 9월 7일 군함을 보내 중화민국의 보급선을 엄호한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대만 본섬을 비롯하여 금문도와 마조도를 자신의 영토라 규정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에 중국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9월 8일 중국은 금문도에 5시간 20분간의 대규모 포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문도 해변에서 하역 중이던 중형상륙함 미락호(LSM-242)가 침몰하면서 중화민국군 6인이 사망하는 등 총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sup>51)</sup>한 것이다. 그리고 9월 9일 2대의 정찰기를 호위하던 CAF전투기 12대가 10여대의 미그기와 충돌하면서, 미국 측의 CAF전투기 1대와 중국측의 미그기 5대가 격추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58년 9월 22일 공중전에서 중화민국은 미국이 제공한 AIM-9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여 중국 전투기를 공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 측 전투기 20여기를 격추하였다. 이 외에도, 8월 23일 중국의 포격이 시작된 이후부터 제2차 대만해협이 막을 내린 10월 25일까지 두 달 동안 대만해협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대규모의 포전이 3차례 발생하였으며, 해상전은 총 18차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공중전이 총 10차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제2차 대만해협위기의 중심이었던 금문도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처음 제2차 대만해협위기가 발생한 이후 9일 동안 인민해방군은 금문 지역에 13만 6천 5백 55발의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단타쌍불타’가 시작되기까지 44일 간 금문 지역에 약 50만발의 포탄을 발사한다. 금문현에서 편찬한 『金門縣志(금문현지)』에는 제2차 대만해협위기 당시 포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45일 동안 지속된 823 포전 기간 동안, 중국군은 금문에 총 44만 4천423발을 포격하였다. 금문현위원회는 포전 30일 만에 피해 상황에 대한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사망 603명, 중상 606명, 경상 93명, 가옥 전량 1천918실 파괴.<sup>52)</sup>

來的干涉, 都是侵犯中國主權的罪惡行爲.”

50) The united bac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and US Government 참조)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 - 1960, China, Vol.1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134-136.

51) 林慶銘, 「八二三戰役之研究」, 『軍事史評論』, 第25期, 2018.6, p.138.

52) 金門縣政府編, 『金門縣志』, 1992, p.1252. “八二三炮戰自八月二十三日起, 至十月五日止, 在四十

이처럼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포격 중단을 요청함과 동시에 회담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지속된 군사적 충돌에 부담을 느낀 모택동은 10월 5일 미국 국적의 비행기와 선박에 대한 포격을 금지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철수토록 결정한다. 이 같은 모택동의 결정에 따라 중국 국방장관 팡덕회는 10월 6일 「告台灣同胞書(대만동포에게 고함)」<sup>53)</sup>을 발표하여 ‘양안은 모두 중국 사람이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중화민국과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을 제안하고, 일주일간 포격을 중지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다시 2주간의 공격 중지를 발표한다. 이로써 양측의 적극적인 공격은 멈추었으며, 포격전은 소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10월 25일 중국 국방부는 「再告台灣同胞書(대만동포에게 다시 고함)」<sup>54)</sup>을 발표하여 “미국의 음모와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홀수 날짜에만 포격하고, 짝수 날짜에는 포격하지 않겠다(單打雙不打)”고 선언한다.

제2차 대만해협위기 이후, 금문도를 비롯한 대만해협 도서에 대한 중국의 점령계획이 무산되면서, 대만해협의 정세는 사실상 냉전적 군사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다. 1958년 10월 25일 중국이 단타쌍불타 방식의 전투를 천명하고 난 이후부터 1979년 10월 1일 중국과 미국이 수교할 때까지 약 20년간 중국과 중화민국은 단타쌍불타라는 정례적인 포격을 지속하였으며, 심지어 1961년 중국 중앙군사위가 복건성의 부대에 금문도에 대한 실탄포격을 중지시킨 이후부터는 양측 모두 공포탄을 발사하는 선전전의 형태로 바뀌었다. 심지어 양측은 포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상대측을 향해 안내방송을 하였고, 무인 지대를 향해 포격하는 등 ‘전쟁’의 성격보다는 ‘시위’의 성격을 지닌 포격을 지속하였다.

## 5. 결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부터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의 수교에 이르는 냉전 시기 동안,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의 ‘대만해방’과 대만의 ‘본토수복’이라는 상반된 목표 하에 세 차례의 전투가 발발한다. 1949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四天中，共匪砲擊金門計四十四萬四千四百二十三發……金門政委會首次發表砲戰三十天民眾傷亡統計：計死亡六十三人，重傷六十六人，輕傷九十三人，房屋全毀一千九百一十八間，半毀一千八百零一間……”

53) 孫巖, 「告台灣同胞書」, 『中美關係與台灣問題教學參考資料選編』,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1999. p.30.

54) 孫巖, 「告台灣同胞書」, 『中美關係與台灣問題教學參考資料選編』,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1999. p.32.

전개된 고령두전투, 1954년 9월 3일부터 1955년 5월 1일까지의 제1차 대만해협위기, 1958년 8월 23일부터 1958년 10월 5일까지 지속된 제2차 대만해협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차례의 전투는 대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세력 다툼인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형성된 동아시아에서의 세계적 냉전 대결 구도와도 겹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4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기게 되면서, 대만해협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해방과 중국 국민당의 본토 수복이라는 목표 하에 고령두전투가 발생한다. 고령두전투가 발생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 간 세력싸움의 전선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대만해협에 위치한 금문도 역시 대만을 해방하려는 중국에게는 가장 먼저 수복해야 할 적진이자, 본토를 수복하려는 중화민국에게는 반드시 수호해야 할 최전선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며 대만해협과 금문도의 위상은 점차 변화하게 된다. 동아시아가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 진영과 일본, 대만, 한국의 자유 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이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이 되었고, 이에 따라 대만해협과 금문도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의 공산 진영의 확대와 중화민국의 자유 진영의 확산이라는 상반된 목표는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로 가시화 되었으며, 금문도를 비롯한 대만해협은 또 다시 전장으로 바뀐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중화민국의 군사적 충돌이 동북아 전 지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핵공격을 포함한 무력 개입을 계획·공표함으로써 대만해협은 양자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진영 봉쇄의 율타리로 변모한다. 이로써, 대만해협은 또다시 한시적인 평화를 갖게 된다.

이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을 내정문제로 규정하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문도와 마조도 등 대만해협에서 중화민국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공동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국에게 더욱 강화된 안보지원을 요청하면서 대만해협에는 중국-대만-미국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펼쳐진다. 이 같은 힘겨루기가 다시 또 열전으로 폭발한 것은 1948년 제2차 대만해협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이 중동 혁명의 지원과 대만해방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갖고,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전을 또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대만 전역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개입하였으며, 중화민국 역시 미국의 지원 하에 중국과 대규모 무력전을 지속한다. 이 같은 양측의 열전은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이 제안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회담 이후 ‘단타쌍불타’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 같은 단타쌍불타 방식의 포격전은 무력싸움을 위한 포격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중국



과 자유진영의 중화민국 간의 선전전으로써, 결국 대만해협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처럼, 대만해협은 냉전시기 중국과 중화민국의 세력 다툼의 장이자 동아시아 냉전 지형의 성립과 대립이 공존하는 전략지점이었다. 중국은 대만 해방과 공산진영의 확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전을 펼쳤으며, 대만과 연안 도서의 귀속 문제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간의 내전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반면, 중화민국의 대륙 수복과 자유진영 수호 대한 부단한 노력 역시 국제사회에서 국민정부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과 중화민국 간의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일본·한국·대만에 이르는 동북아 자유 진영을 확립하는데 일조하였다. 이처럼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고령두전투, 제1차 대만해협위기, 제2차 대만해협위기 등 세 차례의 전투는 동아시아 냉전 지형의 변화에 일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 문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마이클 스조니 저, 김민환 역, 『냉전의 섬, 전선의 금문도』, 진인진, 2020.
- 國防部史政處, 『金門戰役』, 國防部印刷廠, 1957.
- 韓懷智·譚旌樵,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 金門縣政府 編, 『金門縣志』, 1992.
- 卡爾 洛特 蘭金, 『蘭金回憶錄』, 上海人民出版社, 1975.
- 梅孜主, 『美台關係重要資料選編(1948.11-1996.4)』, 時事出版社, 1996.
- 孫 巖, 『中美關係與台灣問題 教學參考資料選編』,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1999.
- 陶文釗, 『美國對華政策文件集 第2卷(上)』, 世界知識出版社, 2004.
- 汪朝光·王奇生·金以林, 『天下得失: 蔣介石的人生』, 中和出版, 2012.
- 廈門軍事志編纂委員會, 『廈門軍事志』, 2000.
- 葉 飛, 『葉飛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8.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6冊』, 中央文獻出版社, 1994.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毛澤東軍事文選』, 中國人民解放軍戰士出版社, 1981.
- 總統府 編, 『蔣總統引退與後方佈置(2), 蔣中正總統檔案, 革命文獻拓影, 戡亂時期, 第29冊』, 時英出版社, 2009.
-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 - 1954, China and Japan,

*Vol.14, Part I*,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John P. Glenn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China, Vol.2*”,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Mark A. Ryan, David M. Finkelstein, and Michael A. McDevitt, “*Chinese War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M. E. Sharpe, 2003,

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China White Paper*”, August 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p.xvi.

<논문>

권오신,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초 - ‘뉴룩(New Look)’ 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 『미국사연구』, 제21집, 한국미국사학회, 2005.

김중섭, 「金門의 전략적 지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950년대 대만해협위기 기간 미국, 중국, 대만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57집, 중국학연구회, 2011.

박정현, 「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아세아연구』, 제56집 3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13.

徐相文, 「중국 國·공내전시기 金門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04.

이가영, 「대만해협위기와 심리전 - 냉전시기 대만과 중국의 뼈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집 4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이규원, 「중국의 대만 도서지역 포격사건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27권 2호(통권92호), 한국국방연구원, 2011.

정창윤·최호재, 「한반도 전략도서 개념, 판단과 운용방안」, 『군사연구』, 제147집, 육군군사연구소, 2019.

林慶銘, 「八二三戰役之研究」, 『軍事史評論』, 第25期, 國防部政務辦公室, 2018.

김창수, 「대만해협 위기 사례로 본 미국의 對중국 강압전략」,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2016.

손연정, 「대만해협위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2.

이규원,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 외교정책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황규홍, 「대만해협 위기와 미국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

<기타자료>

“一定要解放台灣”, 『中國共產黨新聞』, 2021.06.30., <http://cpc.people.com.cn/BIG5/64162/64170/4467358.html>

“金門戰役檢討”, 『聯合報』, 2009.06.04.

“60年前我爸是共匪 被俘黨証肚裡吞”, 『聯合報』, 2009.03.19.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chin001.asp](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chin001.asp) [2021.06.30.]

US NARA CIA, “The Chinese Offshore Islands”, 8 Sept. 1954, p.3. 문서번호 CIA-RDP80R0144R000300050008-7.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臺灣海峽, 金門島, 九寧頭戰役, 第一次臺灣海峽危機, 第二次臺灣海峽危機				
Key Words	영문	Taiwan Strait, Kinmen, Battle of Guningtou, First Taiwan Strait crisis, Second Taiwan Strait crisis				
<div>A Study of Changes in Perceptions of Kinmen Island and the Taiwan Strait in China, Taiwan, and the United States</div> <div>Lee Ga-Young</div> <div>During the Cold War, the Taiwan Strait differs in role and character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China and Taiwan at home and abroad, and becomes a key stage for the process of changing the Cold War type in East Asia. In the Battle of Guningtou, which took plac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aiwan Strait played a role as a front line for the power fight between China and Taiwan. However, as World War II ended and East Asia divided into communist and free camps, the Taiwan Strait became a demarcation line that divides the East Asian Cold War. After that,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the first Taiwan Strait crisis in earnest, the Taiwan Strait was transformed into a battlefield for the expansion of the Cold War territory. However, as the expansion of armed conflicts poses a threat to security and safety in the Pacific region, the Taiwan Strait becomes a fence for a camp blockade that stabilizes conflicts between the two. However, as China launched the second Taiwan Strait crisis under the banner of supporting the Middle East Revolution and liberating Taiwan, the Taiwan Strait turned into a heated space again. And as the talk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rogress, the Taiwan Strait turns into a venue for ideological warfare between China and Taiwan.</div>						
저 자	이가영 / 李嘉英 / Lee Ga-Yo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20.	심 사 일	2022.02.24.	게재확정일	2022.03.11.